

2024년 9월 관광시장 동향

(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)

□ 정부/관광 정책 동향

○ 말레이시아와 러시아, 무슬림 친화 관광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협력 등

-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관광센터(Islamic Tourism Centre)와 러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, 로스카체스트보(Roskachestvo)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무슬림 친화 관광을 활성화 할 예정. 두 기관간 협력각서는 9월12일~13일 개최된 제 4차 이슬람 관광 콘퍼런스 기간에 체결. 협력각서의 목적은 관광분야에서 무슬림 친화 생태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함. 그 일환으로, 호텔 및 환대산업 인증 요건을 무슬림 친화 기준에 맞추는 것임.

- 코타키나발루의 탄중아루(Tanjung Aru) 해변 축제가 9월21일~22일 개최. 동 축제에는 작년도 10,000명의 방문객에서 올해는 15,000명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. 행사 주최측은 폐기물 제로 계획의 일환으로,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방문객들에게 다회용 가방과 물병을 가져오도록 장려. 동 행사 주관은 사바주 관광청(Sabah Tourism Board)과 이벤트 회사인 Sri Pelancongan Sabah이며, 후원은 사바주 관광부 임.

□ 항공/여행업계/여행객 동향

○ 베이징 방문 말레이시아 관광객 대폭 증가 등

- 중국 베이징시 관광당국(Beijing Municipal Bureau of Culture and Tourism)에 따르면, 24년 1월~7월 중국 베이징 방문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전년동기 대비 548% 증가.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아웃바운드 여행사인, 골든 데스티네이션(Golden Destinations)은 올해 9월과 10월에 200개의 여행단체를 중국으로 송출. 또한 베이징시 관광당국은 중국과 말레이시아간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 6개의 여행사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9월초 개최된, 마타(MATTA) 여행 박람회에 참가.

- 중국은 할랄 친화적인 여행상품으로 말레이시아 무슬림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음. 중국의 할랄 서비스 확대와 비자규제 완화로, 중국 여행지에 대한 말레이시아

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. 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, 중국 방문 말레이시아 무슬림 관광객들은 신장(Xinjiang)과 닝샤(Ningxia) 같은 덜 알려진 지역에서 15%에서 20% 증가.

- 24년 1월~7월, 말레이시아 사바(Sabah)주 방문 중국인은 26만2,0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5% 증가. 또한 이는 해당기간 사바(Sabah)주 방문 해외 관광객의 41%를 차지.

◦ 말레이시아 항공, 주당 71편 인도행 항공 운항중 등

- 현재 말레이시아 항공은 주당 71편의 인도행 항공편을 운항중이며, 최근 인도 암리차르(Amritsar)행 항공편을 주 4회에서 7회로 증편. 또한 말레이시아 항공은 인도를 사업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장으로 여기고, 인도내 새로운 취항 목적지를 모색하는 한편,, 인도 트리웬드럼(Trivandrum)과 아마다바드(Ahmedabad) 행 항공편 증편을 검토중. 이러한 계획에도, 말레이시아 항공은 공급망 문제와 인력의 제약 등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, 24년 12월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항공노선을 축소할 상황.

- 에어 인도(Air India)는 9월15일부터 쿠알라룸푸르와 델리(Delhi)간 직항편을 매일 운항. 에어 인도는 말레이시아에서, 오스카 여행사(Oscar Travel Services)를 여행객 판매 에이전트로 지정. 말레이시아는 올해 100만명의 인도 관광객 유치를 목표.

- 에어아시아(AirAsia)는 코타 키나발루(Kota Kinabalu)-호치민시(Ho Chi Minh City)를 연결하는 노선을 12월 3일부터 주 3회 운항 예정. 말레이시아는 올해 47만5천명의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목표.

- 일본 ANA 항공(All Nippon Airways)은 쿠알라룸푸르-도쿄간 직항노선을 9월1일부터 주 12회에서 14회로 증편.

□ 관광 관련 기타 동향

◦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에서 인도네시아는 가장 큰 시장

-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에 있어서, 인도네시아는 2023년 전체 의료관광객의 64.9%를 차지한 가장 큰 시장. 인도네시아 의료관광객은 주로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지역에서 오며, 주로 페낭과 쿠알라룸푸르를 의료관광목적지로 선택. 23년 말레이시아 의료관광수입으로 페낭은 40.5%, 쿠알라룸푸르는 41%를 차지. 중국과 인도에

서 오는 의료관광객은 각 5%와 3.1%이며, 태국과 싱가포르는 의료관광 분야에서 말레이시아의 주요 경쟁국가임.

※ 출처 : malaymail.com, thestar.com 등 현지 정부 및 주요 언론 요약

<https://www.malaymail.com/news/malaysia/2024/09/17/malaysia-and-russia-colaborate-to-develop-muslim-friendly-tourism-ecosystem/150751>

<https://www.thestar.com.my/news/nation/2024/09/17/tanjung-arau-beach-fest-to-continue-zero-waste-practice>

<https://www.chinadaily.com.cn/a/202409/09/WS66de9456a3103711928a6ea3.html>

<https://www.rfa.org/english/news/malaysia-muslim-tourists-china-xinjiang-09102024161859.html>

<https://www.thestar.com.my/news/nation/2024/09/19/sabah-sees-surge-in-chinese-tourist-arrivals-prompting-extended-flights>

<https://travelbizmonitor.com/malaysia-airlines-eyes-expansion-into-india-calls-the-country-very-important-market/>

<https://www.malaymail.com/news/malaysia/2024/09/18/air-india-appoints-oscar-travel-services-as-its-agent-in-malaysia-offers-kldelhi-direct-flights-daily/150794>

<https://www.tourism.gov.my/media/view/tourism-malaysia-welcomes-air-india-s-direct-flights-to-kuala-lumpur>

<https://www.traveldailynews.asia/aviation/airasia-launches-new-route-from-kota-kinabalu-to-ho-chi-minh/>

<https://www.thestar.com.my/news/nation/2024/09/03/ana-increases-flight-frequency-between-kuala-lumpur-and-tokyo>

<https://thesun.my/business-news/indonesia-remains-largest-contributor-to-malaysia-s-medical-tourism-market-ND13012492>